민족문화연구 제83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3호에는 2종의 기획특집 논문 7편, 일반 논문 14편을 포함하여 총 21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철학이 6편, 문학이 7편, 사학이 4편, 어학이 4편인데, 이 가운데 기획특집 논문 7편이 철학과 문학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한국학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획특집으로는 "조선시대 유서(類書)의 지식학적 검토"와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1)"이 수록되었는데, 기획특집 논문 7편에 대한 소개는 '특집의 말'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김무림은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하여"에서 한자를 이용한 고대국어의 다양한 표기를 검토하여 고대국어 한자음을 재구하고 중세국어 한자음과 고대국어 한자음의 차이를 검토한 토대 위에서 전기 중고음이 고대국어 한자음의 중요한 기층이며 중세국어 한자음은 고려시대에 새롭게 정립된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필자의 귀납적 접근은 중세국어 한자음과 차이를 변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국어 한자음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당히 소략한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을 탐색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범은 그동안 국어사 연구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던 고대국어와 석독구결 연구를 국어사 교육의 관점에서 새롭게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어사 연구와 국어사 교육의 관계를 논의하고, 한문과 국어의 통사적인 차이를 다루면서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위상과 의의 및 교육 내용에 대해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석독구결에 대한 국어사 연구의 내용들이 국어사 교육에서 지닌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제로 적용할 논의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이선은 "고문헌에 나타나는 자[上]의 용례와 문서보관제도"를 통해 조선시대에 연대기사료, 고문서, 의궤, 등록 등에서 통용되었던 상(上)자가 자[上]

로 발음되며 “보관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두로 사용되었던 용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보관처 뒤에 결합된 上의 용례 분석을 통해 그것이 조직 및 운영의 성격, 개인의 권리 및 신원 증명, 민정과 관련하여 풍습상 긴요한 사안 등과 연관된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조선시대 문서보관의 제도적 장치와 연관된 사례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조선시대 문서와 연관된 이두 사용 및 제도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미는 “조선 불교조각과 접경기 요동의 종교유산과의 교류 고찰”에서 역사적으로 조선과 국경을 접했던 요동지역의 불교조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요녕성의 불교조각이 명대의 티베트 양식으로서 조선시대 불교문화의 이해와 불교조각의 양식 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했음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티베트불교가 요동지역 불교미술을 거쳐 조선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과 교류의 양상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한국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접경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김동진은 “내지덕(來知德)의 『주역집주(周易集注)』의 판본 연구”에서 『주역집주』의 중요한 두 판본인 장유임본과 고앵영본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차이점을 탐색하고, 고앵영본에만 실려있는 도설들 중 「보유」의 19개 도설은 내지덕의 저작이지만 「부도」의 도설들은 대체로 호거인과 장황의 저작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장유임본 계통이 선본이라는 점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조선 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 내지덕의 역학사상과 송명대 역도학 전통의 연구에도 일정하게 기여하지만,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 소장본 『신각내구당선생역주』가 조선 후기 내지덕 역학의 유행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시대 구결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후속 연구를 추동하고 있다.

이재경은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은 조선과 청의 군신관계가 확립된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청의 예부가 조선국왕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고 罰銀하는 관행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 법적 성격과 조선국왕의 위상을 논의하였다.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와 벌은은 정치적 제재나 禮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의 법적 처벌이라는 점에서 명대와 달

리 약화된 청대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한편 조선국왕이 직접적 처벌의 대상이었던 청의 왕공이나 관원과도 다르고 다른 조공국의 군주와도 구별되는 유례없는 특수한 위상을 지녔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전형적 조공관계로 일반화시키기 힘든 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검토하는 데 유익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회는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주거공간의 이론과 실제"에서 18세기 이후 사대부들의 이상적 주거공간관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중환의 『택리지』, 성해응의 『명오지』, 서유구의 『상택지』가 각각 가거처(可居處), 명오(名塢), 명기(名基)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을 비교하였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전통적인 풍수설을 비판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집터를 선택하려는 관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좋은 집터의 사례로 소개되는 지역적 분포 차이를 검토하여 서울을 선호하는 사대부 관료의 관점과 18세기 이후 이상적 거주공간관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권순긍은 "「춘향전」의 근대적 변개와 정치의식"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끈 고전 「춘향전」의 근대적 변개 소설들, 특히 정치를 담론화한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애정서사의 대표적 고전인 「춘향전」이 인물과 서사구조를 변개하여 근대적 정치의식을 형상화한 방식과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작가들이 '왜 현실의 문맥을 직접 소설화하지 않고 「춘향전」을 변개하여 당대의 정치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은 변개소설들을 통해 당대의 정치의식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고전 「춘향전」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변개소설의 현대적 의미를 음미하는 하나의 독법을 잘 보여준다.

이형대는 "일제 식민지시기 이중언어적 상황과 창가의 혼종성"에서 일제시기에 성행했던 학교 창가와 유행 창가를 탈식민주의 문화이론인 혼종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연구다. 이러한 관점은 일제 강점기 창가 연구가 일제 식민권력의 일방적 이데올로기의 관철이라는 주류 인식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식민지-피식민지 문화융합의 과정에서 피식민지가 차별적인 정체성을 생산해내는 혼종성의 관점에서 창가를 재해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창가에서 나타나는 주인언어와 손님언어의 교섭, 경쟁, 충돌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 변형이나 재현 방식이 조정되는 양상를 검토하고, 유행창가에서 흉내내기, 변형, 모방, 조롱, 치환 등의 혼종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일제시기 창가가 지배자의 원천언어와 차이를 생성하면서 원천언어를 무력화시키는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창가를 피식민자의 정치-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언어공간으로 재인식할 가능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김남석은 "극예술연구회 제4회 공연작 〈무기와 인간〉의 무대 장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 1933년 경성공회당에서 공연된 〈무기와 인간〉의 무대 디자인과 장치를 통해 공연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30년대 극예술연구회의 실상을 드러내었다. 이 공연은 식민지 조선인 신극인의 현실관에서 전쟁의 의미와 전쟁 이후 민중의 공존 방식을 고민하였는데, 특히 무대 디자인이 연극을 통한 암시적 전언과 예술적 형상화에 실패한 점을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연극의 예술적 형상화와 시대 상황의 관계에 대한 천착에서 일독할 만한 연구다.

오진석은 "1955-1960년 김영선의 정치활동과 경제정책 실행방안 구상"에서 제2공화국의 재무부장관 김영선이 1950년대 후반 야당인 민주당에서 벌인 정치활동과 경제정책을 검토한 연구다. 김영선은 정치적으로는 반이승만 정치노선을 취하면서 민권 성장과 중산층 양성을 주장하였으며, 경제정책으로는 자유경제 원칙의 경제 운용, 사회정의에 입각한 공전한 분배제도 마련, 개괄적 경제계획에 의한 경제개발 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인위적 저환율에 의한 은폐보조가 초래한 관권지배 경제구조를 극복하고자 환율과 금리의 현실화와 조세개혁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제2공화국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이후 한국 경제정책의 전개에 대한 이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철은 그동안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00년대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과 특징"을 반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북한철학은 북한의 지식, 사상체계, 이념지향의 기반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학철학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으로 인해 연구가 저조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정치선전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

다고 평가받는 철학분야 전문학술잡지인『철학연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론과 실천의 종합, 탈이데올로기적 연구의 증가, 철학연구의 보편성 확보 등을 21세기 북한철학 연구의 특징으로 추출하였는데, 이는 향후 학문의 분단과 분단의 학문을 넘어서서 통합적 코리아학을 지향하는 한국철학사 서술을 위한 밑거름이 될 만하다.

나은미는 “호칭어 사용의 갈등 양상과 적절한 호칭어 사용을 위한 제언”에서 최근 사회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 호칭어 사용의 쟁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호칭어 사용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시대 인식과 어울리지 않는 비대칭적 호칭어, 나이와 관계의 역전에서 오는 기준 설정의 어려움, 친족 호칭어의 비친족에게 적용하는 유사 호칭어 사용, 두 가지 이상 관계의 상충 시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는 한편, 성별 비대칭적 호칭 체계를 대칭적이고 평등한 체계로 정비하고 유사 호칭어 사용을 절제하며 말하기 교육과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호칭어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남통대학의 범기혜는 “심리변화 관련 주술관계 연어의 선택 제약 분석”에서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연어를 학습할 때 습득이 어려운 주술관계 연어를 검토하였다. 특히 심리변화를 나타내는 주술관계 연어의 특성상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의 연어핵과 발생의 의미를 지닌 동사의 연어변 사이에서 드러나는 선택 제약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는 향후 한중 번역이나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에서 일정한 활용 가치가 기대된다.

박범은『各庫會計中草冊』해제에서 고종 27년인 1890년 6월 함경감영 각고(各庫)의 재정내역을 작성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재정 자료 중 사례(事例)나 사례책(事例冊)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데 비해, 소수가 현존하는 지방의 회계중초책은 아직 구성조차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본 자료의 소개는 그동안 충분히 알 수 없었던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운영방식과 회계책 작성경위에 대한 내막 파악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족문화연구』제83호는 투고 논문 편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학의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기획의 기능을 강화하여 두

종류의 기획특집을 수록하였다. 인적 구성에서도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학자들과 새로운 문제제기를 감행하는 신진학자들의 조화와 더불어 일본 학자와 중국 학자들의 참여가 괄목할 만하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학 분야의 확대와 연구의 다양화 및 학술기획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훌륭한 연구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